

再編過程의 企業環境

尹

章

奎

△經濟評論家▽

1. 갈피잡기 힘겨운 경우도

晩近 企業界에는 보기드물게 多樣的 外來的 要因에 依하여 일단 갈피를 잡기 어려운 狀況 下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예를 들자면 ① 企業公開誘導政策이 強力히 持續되는 가운데 公開適格企業으로 選定 또는 公開催告 對象이 된 業體名單이 發表되었고 ② 지난 2日에는 經濟閣議가 法人稅 등 施行令 改正案을 議決하여 法人所有의 住宅, 別莊 등 으로서 當 法人의 任·職員 및 其他特定人이 使用하는 것에 대한 課稅를 徹底히 하려는 節次가 進行中이다.

그리고 政府는 現行 物價安定法과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公正去來法案을 한데에 묶은 物價 安定 및 公正去來法案을 마련하여 이번 定期 國會에 提出할 것이란 事實등등이 모두 多數 企業의 神經을 쏘리게 하는 單數 또는 複數의 命題들이다.

2. 企業公開

企業의 社會性이 強調되는 時代的 潮流에 밀려 企業을 完全私有物로 생각해 오던 企業 人들의 意識構造가 생각보다는 빨리 再調整되 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企業 을 公開해본 결과로는 企業運營에 미치게 하 는 두드러진 摩擦(創業主中心의 大株主이자 企業運營實權陣과 外來新株主間에)의 例도 거 의 들리는 것이 없다. 그리고 또 公開實績이 豫想外로 良好하다. 「企業을 많이 公開해도 資金面으로 그 株式들을 消化할 能力이 없다」 던가 「實質적으로 財務構造가 不透明한 大勢 라고 볼 수밖에 없는 現段階에서 새로 株式公 開를 하는 企業들의 資產水準과 配當能力을

어떻게 豫想·判斷하여 株式公募에 應할 것이냐」고 하는 事前懷疑들과는 달리 많은 業體들의 株式公開에 있어서 通行禁止時間이 지나기만 하면 一般公賣 指定場所들 앞에는 새벽의 長蛇陣을 이루는 것이었다.

5.29以後 지난 9月末까지의 사이에 公開된 財閥系는 25個業體에 不過한데 財務構造 등으로 보아서 優良한 편인 B企業群中에서 公開한 것은 겨우 9個業體뿐이고 그와 對照的 存在인 A企業群 企業의 公開가 16個社에 이르렀다. 比較的의 優位의 企業體는 公開를 뒤로 돌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먼저 公開하려는 것이 財閥企業界의 心理이고 計算인 듯하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來年末까지가 大企業層 企業公開의 記錄的인 段階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전 財務部가 1百5個社의 公開適格業體를 發表하는 同時에 그中の 30個社는 年內에 公開해야하는 公開催告의 對象業體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1百5個社 가운데서 이번에 催告를 받은 30個社를 除外한 나머지의 75個社도 來年中에는 모두 公開하게끔 所要節次를 밟을 政府方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政府로부터의 催告나 強制指定의 措置가 없이 自進公開할 企業들도 앞으로 來年末까지는 相當한 數에 達할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公開를 뒷받침하는 資金事情 등을 勘案하는 政府配慮가 있을 것인지의 與否는 未知數의 일로 돌린다 하더라도 來年末까지 있어야 할 財閥企業의 公開는 自意·他意間에 거의 不動의 事實視된다.

싫든 좋은 適格線에 이르면 企業은 公開해야만 하는 時代에 들어섰는데 이를 가장 合理的으로 다시 말하자면 ① 金融政策上의 無理가 없게 ② 또 企業人들의 企業意慾을 한치도 後退시키지 않고 ③ 善意의 投資者가 政府의

企業公開方針만 믿고 따라간 나머지 意外의 損失을 當하였다든 등의 副作用등이 없이 企業公開가 스므스하게 進行되어야 한다는 課題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金融政策上의 企業資金 뒷받침은 더 말할 것도 없이 重要한 一翼이고 企業資金調達이 間接資金 時代에서 直接資金 時代에로 旋回하여야 할 事理는 政府·企業 어느편에도 모두 있다.

즉 政府가 財政 및 稅制에 依해서 그리고 借款導入支援 등으로는 勿論 偏流상태까지 빚어내면서 金融政策을 통한 企業資金의 支援方法을 無期限 쓸수는 없다. 뿐만아니라 經濟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그같은 조치의 持續은 감당할 수도 없는 政府立場쯤 되고 만 것이다.

그런가하면 企業界도 高利인 私債依存度를 크게 낮추거나 그와 絕緣치 않고서는 企業環境이 眞實히 促求하는 經營合理化 方法의 重要한 側面을 外面하는 結果가 될 뿐만아니라 非公開法人인 때문에 강하게 마련인 稅負擔의 加重環境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그리고 世界的인 潮流인 同時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漸次傾向化되기 시작한 企業의 大型化 段階에서 落伍할 것이 뻔한 노릇이다. 政府가 財政·金融의 兩面을 通해서 政策的으로 支援해 오던 積極적인 企業育成의 方法을 消極化하지 않을 수 없게된 後에도 企業公開에 依한 資金의 自體調達을 하지 않는다면 企業의 大型化를 可期할 수 없다. 또 企業의 大型化가 國際競爭力과 直結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否定할 餘地도 甚히 少다.

3.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法 試案과 機密費基準引下

한편 政府가 마련한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法 試案의 背景과 骨子を 살펴본다면 現行物價

安定法과는 別途로 政府가 立法 推進을 해온 公正去來法案의 骨子를 묶어서 하나의 新法을 制定하려는 目的인 것으로 풀이된다.

同法案은 決議機關인 物價安定委員會를 新設하도록 하였고 規制對象이 되는 不公正 去來行爲를 明示하였으며 不公正 去來에 대한 罰則을 規定하였는데 原因規制가 아닌 結果處罰의 類型인 試案이다.

둘이커 본다면 企業社會의 獨·寡占率이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獨寡占禁止法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擡頭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前의 일이었다. 한편 不公正去來의 素地가 될 獨寡占自體를 禁止하는 대신에 不公正去來가 發生할 경우에 이를 處罰하는 立法措置를 함으로써 豫防效果를 건우려는 것이 政府年來의 政策方向이었다.

하기는 이번의 法案에도 最高價格制와 事前承認制를 採擇하게 되어 있으므로 不公正去來에 대한 「豫防政策」을 外面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獨寡占企業의 生成自體를 막아내려는 데 있어서 禁止法에 依하는 源泉的 防止와는 豫防方法의 次元이 다르다.

그리고 公共料金에 대한 規制를 大幅強化하려는 것은 政府樹立後 오늘날까지 公共料金의 上昇이 많은 경우에 物價양등의 先導的 役割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期待케 하는 바 큰 法案의 內容一部인 상시다.

한편 國家獨占事業이나 大統領이 指定하는 事業의 製品價格 및 서비스料金は 物價安定委의 議決과 國務會議審議 大統領承認을 얻어 最終的으로 定하고 價格을 變動할 경우도 같은 節次를 밟도록 되어있다. 특히 慎重을 期하려는 理由의 所在를 알 수 있거니와 運用의 妙가 重要視되는 法案의 部分이다.

現行의 物價安定法은 文字 그대로 物價安定이 時急해 갔다고 여겨졌던 時點에서 立法된

應急的인 것이고 主로 稅負擔加重에 依한 不公正去來防止法이라는 印象을 따르게 하였다. 따라서 今後 政府는 계속 公正去來法의 立法을 拋棄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最近에 閣議가 法人稅法, 所得稅法, 相續稅法등 一聯의 稅法施行令改正案을 議決하여 來年부더 法人所有住宅등에 대한 法人稅 所得稅 및 其他의 課稅를 嚴格히 할 方針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그리고 住宅등 法人所有 不動產의 使用者는 適正使用料를 基準(關係法人稅)으로 한 稅金의 綜合所得稅를 물어야하게 되는 것이 關係稅法施行令의 改正內容이다.

그런데 企業으로써 唐慌하지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이번의 法人所有住宅등의 不合理的 運用, 管理의 是正이 다음과 같이 企業機密費의 使用基準을 크게 낮추게 된 契緣으로 化한 點이다.

4. 問題 點 들

1. 企業公開과 動員될 수 있는 資金의 底力

政府가 年內에 公開할 것으로 催告한 30個 企業體의 株式賣出을 위해서만도 1百 80億원의 資金이 動員되어야하는 것으로 推算되어 있다.

그런데 이같은 龍大한 賣出株式을 消化시키려면 企業등 機關의 投資보다도 個人投資의 巨步進出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上半期의 實績을 본다면 個人資產의 運用패턴이 상당히 달라졌다. 즉 株式, 私債 등 有價證券 投資에서 預金·信託으로 쏠리고 말았다. 有價證券 發行市場이 個人可用資金의 增加額을 제대로 吸收하지 못한 것은 定期預金の 安定性和 그 金利의 比較高率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企業體, 金融, 保險 및 其他의 機關 投資를 지나치게 期待할 수 없는 것은 金融, 保險등등이 國·公債券, 國民投資基金등 政策 金融의 他意過重負擔에 苦心하고 있으며 市銀 등 金融機關은 金融緊縮이 사실상 強化상태로 持續되는 段階에서 新規貸出의 門을 크게 좁히면서도 支準不足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 企業資金의 아래와같은 上半期實情(韓銀조사분석)은 특수관계가 아닌 他企業의 株式引受를 原則적으로 排除하고 있다.

즉 上半期에 있어서의 法人企業 資金不足現象은 前年同期에 비해 57.2% 增加하였는데 資金不足총액이 7천5백8億원으로 推計되어 있다. 그리고 借款이 1千8百47億원, 貿易信用이 2千8百72億원으로 兩者를 합하면 약 2百2%가 늘어난 셈이다.

또 內部資金比重이 18.6%(前年同期 24.1%)로, 間接金融方式의 資金調達이 40.5%(前年同期는 54.0%인데 今年는 銀行돈 借入難으로), 直接金融比重이 15.0%(前年同期는 19.2%인데 今年는 非公開法人의 增資不振으로)등으로 각각 低下되고 法人企業의 對外負債比重이 前年同期의 20.3%에서 一躍 36.2%로 激增하였다.

이와같은 一聯의 數値는 ① 企業이 公開해야 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公開계획의 達成이 總體的으로 볼 때 만만치않을 전망이고 ② 앞으로 계속 擴大될 各 企業公開에 機關投資源으로서의 企業體參加率은 資金大勢로 보아서 甚히 낮은 線일 것같으며 ③ 어려운 環境, 약간 不利한 條件에 依해서라도 借款과 貿易信用(延拂輸入등)에의 依存度가 높아질 것등을 豫見시킨다.

특히 上半期の 法人企業의 資金市場 構成比가 注目된다. 즉 外資市場이 35.4%(前年同期는 20.0%)에 急上昇하고 對照的으로 金融市

場 56.9%(前年同期 67.7%) 證券市場 5.4%(前年同期 10.6%)로 각각 低下되고 오로지 私債市場이 0.4%로 높아(前年同期 마이너스 0.7%)졌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所望스럽지 못한 資金市場構成比 속에서도 法人企業의 所得이 前年同期比 42.7% 增加된 것은 物價의 高率 상승, 稅源調査의 強化를 통한 所得陽性化등에 想到케 하는 바 있다.

2.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法試案의 경우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法에 대한 經濟界의 두려움은 한마디로 말해서 同法의 運用에 經濟界實情이 충분히 把握, 反映되지 않을 可能性에 있는 상싶다. 그런데 同法試案에 따르면 物價安定委는 委員長인 經濟企劃院長官을 비롯해서 財務, 農水産, 商工, 建設, 保社, 交通, 遞信의 各長官을 包含한 15名 以內로 委員會를 構成하게 되어있다. 決議機關인 物價安定委에서 政府의 當然職委員이 過半數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決議의 歸趨는 大體로 既定의 事實化되기가 쉽다.

그리고 業者間의 카르텔 行爲에 대한 主務長官 承認의 有効期間이 2年인 것은 지나치게 長期間이라는 不合理성이 內包된다.

3. 企業機密費의 급격한 基準引下

法人所有 住宅등에 대한 關係法人 任職員等의 使用을 둘러싸고 機密費(管理費)의 變態支出이 밝혀지자 政府는 現行 機密費의 法定認定基準인 資本金의 2%를 1%로, 收入金의 0.4%를 0.1%로 각각 引下키로 經濟閣議가 議決하였고 그後 財務部는 資本金과의 比例에 있어서 機密費의 上限線을 年額 5千萬원으로 할것을 덧붙여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前記한 바와같이 한꺼번에 50% 乃至 그 以下로 高率引下하여도 좋을 만큼 급격한 企業環境變化가 있다고는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다.